

두산인문극장 2019:
아파트 Apartment Nation
기획전

아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
지요

DOOSAN
Gallery

APARTMENT NATION

두산인문극장 2019:
아파트 Apartment Nation
기획전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
지요**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었지요

두산인문극장 2019의 주제는 '아파트 Apartment Nation'이다. 두산갤러리는 두산인문극장 기획전시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었지요»를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참여작가인 구지윤, 김인배, 이용주, 조익정, 황문정을 통해 한국에서 아파트가 만들어 내는 독특한 풍경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본다.

한국인의 70프로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그 곳에 살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주거형태(단독,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등) 중 공동주택 유형의 하나인 '아파트'를 향한 한국인의 지지와 갈망은 각별해 보인다. 한국전쟁 후의 한국사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특수하게 형성되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아파트 숲이 잠식해 가는 한국의 풍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세계의 어느 도시든 오래된 것이 소멸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지역에 따라 그 시대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거주공간은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서서히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때로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차츰 대세를 받아들이며 결국에는 순응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한 경제개발을 겪어오면서 과정에 대한 논의와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 결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것은 가치 있고 추구해야 할 것이며, 오래된 것은 없애거나 덮고 가려서 새로운 무엇인가로 대체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 분위기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국전쟁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어온 무분별한 도시 건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오래된 도시조직들을 파괴하며 비어 있던 땅땀 하나 남기지 않고 구옥들을 철거하면서 거대한 아파트 숲을 만들어갔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우면서도 두려운 변화였을 것이다. 특히 1970-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많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의미 있는 매체를 통해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다섯 작가들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은 모래알에서 우주를 보라'는 말처럼, '아파트'라는 파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지나쳤던 풍경의 이면을 제시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용주는 건축가로서 도시건축적 풍경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해 구현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조익정은 드로잉, 설치로 익숙한 환경이지만 그것이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섬세하게 포착한 내러티브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구지윤은 도시화의 속도에서 비롯된 반복적인 순환 구조의 폭력성과 공허함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황문정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도시의 생태와 변화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낯설을 나타낸 설치로 개입한다. 그리고 김인배는 드로잉이나 조각으로 기존의 익숙한 개념과 인식에 도전하고 질문하며 구분과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뜨리려 노력한다.

Our Paradise,
Probably a Great Place

The theme of 2019 DOOSAN Humanities Theater is 'Apartment Nation.' DOOSAN Gallery presents the DOOSAN Humanities Theater Special Exhibition *Our Paradise, Probably a Great Place*, from May 1st to June 22nd, 2019. Through works by Jiyeon Koo, Inbai Kim, Yongju Lee, Ikjung Cho and Moonjung Hwang, the exhibition takes a multifaceted stance on the unique contemporary landscapes created by apartments in Korea.

What significance lies in the fact that over 70% of the population in Korea live in apartments or desire to live in one? Koreans seem to have an exceptional assurance and yearning for 'apartments,' one of many different forms of communal dwellings (houses, townhomes, semi-detached, multiplexes, condominiums, etc). One can easily comprehend how such phenomenon is a specific outcome of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background of Korea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history after the Korean War. Then, how should we look at the contemporary landscape of Korea, encroached upon by jungles of apartments that have now become so familiar to us?

In any city in the world, it's only natural that the old vanishes and the new appears. The dwelling space is bound to go through changes, at times rapidly and at times gradually, depending on various elements such as its region and conditions of the time. Some may reject such changes at times, but they usually accept and eventually adapt to the general trends. Having gone through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are where we are today without having had any discourses about the process and reflections of criticism on its outcomes. As a result, perhaps we've become so used to believing,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that only the new has values worth pursuing and the old must be discarded, coated over and concealed for it to be worth anything.

The indiscriminate urban construction that has been steadily progressing since the Korean War destroyed old city organizations and transplanted huge jungles of apartment buildings by wiping off all old houses without leaving vacant the smallest plots of land. This would have been a new yet terrifying change never experienced by anyone. In particular, the generation of people born in Korea in 1970s-80s spent their childhood in the midst of such transformations. And many artists of this generation ask themselves questions through meaningful and familiar mediums, in order to understand and internalize such rapid changes. The five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suggest the viewer to think about what lies on the other side of the landscape of apartments which we have never thought about before,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s reflected by William Blake, and to think about the very place of our existence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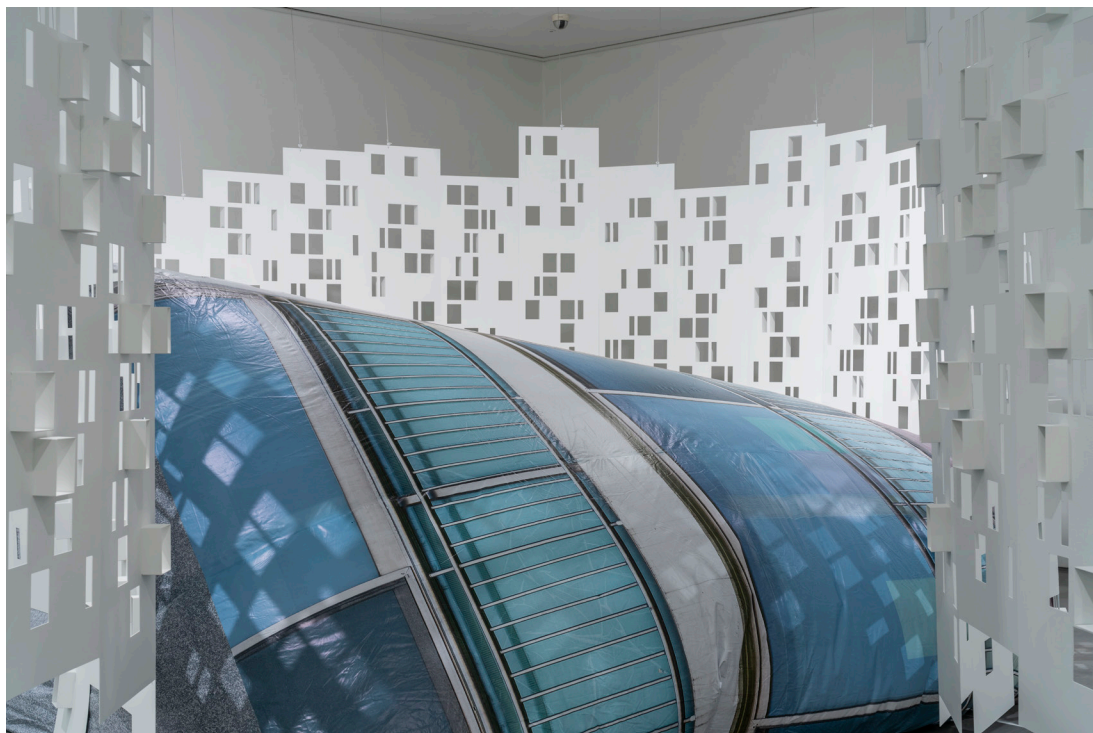
As an architect, Yongju Lee presents structures that interpret the urban architectural landscape through his own perspective, while Ikjung Cho's installations with narratives which delicately capture how the familiar environment affects the human inner world invite us to reflect on our own lives. On the other hand, Jiyeon Koo expresses the violence and futility in the repetitive circulation structure that originates from the speed of urbanization, and Moonjung Hwang's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express the clashes and strangeness in the ecological process and changes in the city where creation and extinction repeat themselves. Finally, Inbai Kim challenges existing concepts and perceptions, question them, and perpetually strive to collapse boundaries and borders through his sculptures.





황문정, <무애착 도시-소실점>, 2018, 혼합재료, 가변크기

Moonjung Hwang, *Non-Affection for the City_Vanishing Point*, 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황문정, <무애착 도시-소실점>, 2018, 혼합재료, 가변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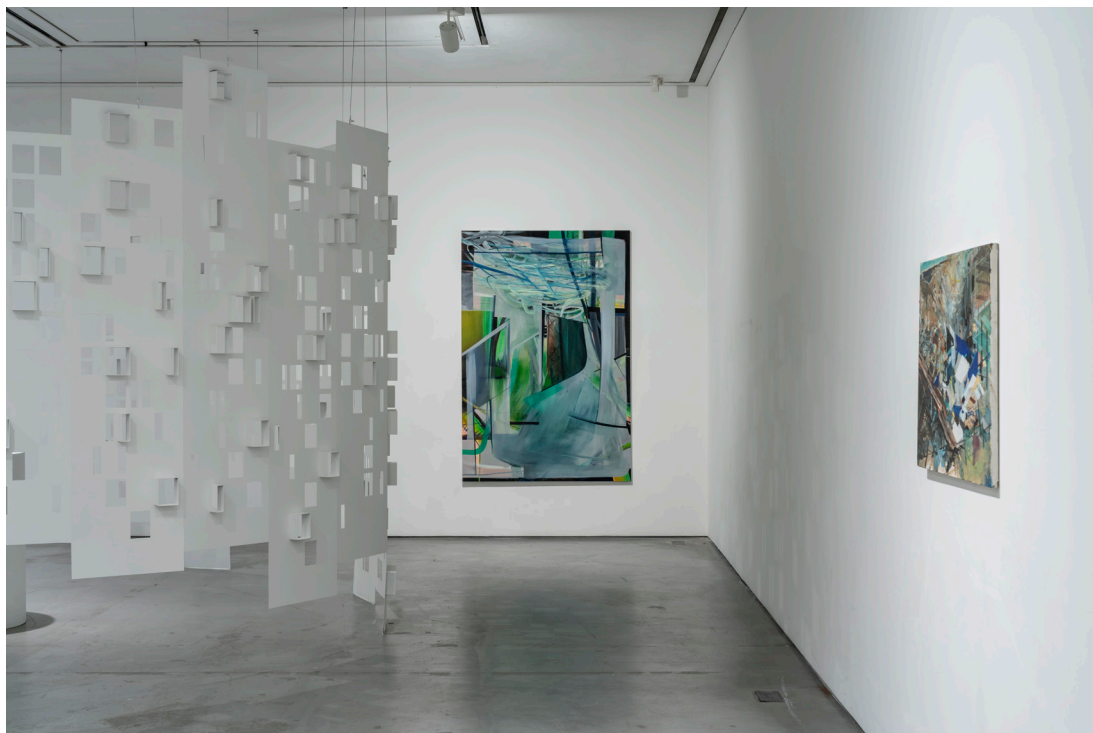
Moonjung Hwang, *Non-Affection for the City_Vanishing Point*, 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구지윤, <감정 소모>, 2009, 캔버스에 유화, 61×76cm

Jiyeon Koo, *Useless Emotion*, 2009, Oil on canvas, 61×76cm



구지윤, <그린 콘크리트>, 2015, 캔버스에 유화, 193.9×130.3cm

Jiyeon Koo, *Green Concrete*, 2015, Oil on canvas,
193.9×130.3cm





구지윤, <불면증>, 2015, 캔버스에 유화, 193.9×130.3cm

Jiyeon Koo, *Insomnia*, 2015, Oil on canvas, 193.9×130.3cm



구지윤, <집으로 가는 길>, 2015, 캔버스에 유화, 193.9×130.3cm

Jiyeon Koo, *On My Way Home*, 2015, Oil on canvas, 193.9×130.3cm



김인배, <무거운 빛은 가볍다-기둥>, 2014, 황동, 30×32×59cm

Inbai Kim, *Heavy Light is Light—Column*, 2014, Brass, 30×32×59cm



김인배, <무거운 빛은 가볍다-기둥>, 2014, 황동, 30×32×59cm

Inbai Kim, *Heavy Light is Light-Columm*, 2014, Brass, 30×32×59cm



김인배, <무거운 빛은 가볍다-폐허>, 2014, 황동, 30×32×59cm

Inbai Kim, *Heavy Light is Light-Ruin*, 2014, Brass, 30×32×59cm



조익정, <아파트 뒷길>, 2018, 자전거, 나무, 오일스테인, 경첩,
종이에 먹, 사운드(8'49"), 가변크기

Ikjung Cho, *Apartment Alleyways*, 2018, Bicycle, wood, oil
stain, oriental ink on paper, sound (8'49"), Dimensions Variable



조익정, <아파트 뒷길>, 2018, 자전거, 나무, 오일스테인, 경첩,
종이에 먹, 사운드(8'49"), 가변크기

Ilkjun Cho, *Apartment Alleyways*, 2018, Bicycle, wood, oil
stain, oriental ink on paper, sound (8'49"), Dimensions Variable

<아파트 뒷길>

단일 단지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J아파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각각 가, 나, 다, 라 로 이름 지어진 상가 네 개와 초등학교 두 개, 중고등학교 역시 아파트 울타리 안에 함께 존재했다. 8살에 이사를 와서 유년 시절,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할 때까지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늘 내게 돌아와야 하는 집이었고, 하루의 종착지였다. 끔찍했던 2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다니던 대학에 복학한 지 겨우 한 학기가 지났을 무렵,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로운 삶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기대와 간섭으로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그 당시 집은 내게 아버지의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감옥같은 공간이었다. 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았다.

전철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도 15분은 족히 걸리는 먼 길이었다. 그 지루한 여정에서 내 유일한 낙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어두운 아파트 뒷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일이었다. 늦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날’, 습관처럼 꺼내 물은 담배는 돛 대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었다. 난 그 슈퍼마켓 주인 내외가 싫었다. 그들은 내 얼굴과 나이를 알면서 늘 내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담배를 팔지 않았다. 난 주인내외와 여러 번 얼굴을 붉히며 싸웠었다. ‘그 날’엔 다행히도 신분증이 있었지만 그들을 마주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남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기서 담배를 사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할 테고, 아버지의 감시망 안에서 금단현상까지 겪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슈퍼마켓 안에는 주인아줌마가 앉아 있었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이 두 명이 매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무기력한 표정으로 TV를 보며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통명스러운 아줌마. “디스 플리스 한 갑이요.” “신분증.” 오늘도 여지없네. 짜증이 몰려왔다.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사이

먼저 와있던 남자애들 중 한 명이 주인에게 물었다. “아줌마, 하기사 기저귀 큰 거 어딴어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시커멓게 큰 학생이 친구랑 이 밤중에 이 조그만 슈퍼마켓에 와서 기저귀 큰 거를 달라고? 여기에 기저귀가 있기는 한가? 슈퍼마켓 안을 속 훑어보았다. 제일 윗칸 구석에 먼지가 뿌얹게 내려앉은 하기사 기저귀가 보였다. ‘저게 있네.’ 코딱지만한 가게에 별 게 다 있다는 생각을 할 무렵 아줌마가 거스름돈을 건네주었고, 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더 피울 요량으로 가게 뒤편에 있던 놀이터를 향해 걸었다. 바로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도둑이야! 저놈들 잡아라! 이 못된 놈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아줌마가 허공에 샷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내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다. “저놈들이 담배를 훔쳐갔어!” “아. 예.”

쌈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다. 아줌마는 중얼중얼 계속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다시 집 쪽으로 몸을 틀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주머니 속의 라이터를 찾아 더듬거리는데 담배 도둑이 아까 가게에서 기저귀를 찾던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 가게 안의 상황이 이해가 갔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가게를 털 생각을 하다니. 주인아줌마가 계산대 앞을 비워야 하니 가게에서 가장 높고 멀리 있는 물건을 꺼내달라고 유인을 한거구나 그리고 내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속 저 밀바닥에서 스멀스멀 무언가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짜증이 나는 것도 아닌. 끈적끈적하고 익숙한 느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다 아버지에게 처음 걸린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하다하다 담배까지 피우는구나.”

나도 이제 성인인데, 담배를 피우는 건 내 자유인데, 난 죄인이 된 양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신분증을 꺼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불안 증상이 온건 그때부터였던가. 지겨웠다. 내 삶을 지배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내 자신이 한없이

Apartment Alleyways

J Apartment is the largest single apartment complex in Asia. It’s so enormous that there are four shopping centers, two elementary schools and a middle school and a high school, all within the walls of the complex. Since moving here at age 8, and all throughout my adolescent years, university days, time in the army, then back in the university again, this massive apartment complex was always a home I had to return to, and the journey’s end of my day. Just about a semester after going back to university after the much-dreaded two-years of military service, the free kind of lifestyle I’d so yearned for began to fade away with my father’s expectations and nagging for me to get a decent job. At the time, home for me was a prison-like space where all my senses stayed overtly alert at all times, on guard against one single person: my father. Going home was not something I found pleasant.

The distance home from the subway station was quite far, easily taking 15 minutes by foot for an adult male. My only pleasure in the dull journey was walking in the dark-lit and seldomly-frequented alleyway behind the apartment buildings, smoking a cigarette. On ‘that day’ in the late summer heat, I took out a cigarette as I habitually do, and it turned out to be my last cigarette. There was a small corner store where I buy cigarettes on the way home. I didn’t like the owner and his wife there, because even though they knew me and my age, they’d always ask to see my ID. Without an ID, they would never sell me cigarettes, which led to several heated-up arguments with them. Although I fortunately had my ID ‘that day,’ the event of bumping into them turned out to be a very unfortunate one. I let out a deep sigh as I lit up my last cigarette.

If I didn’t buy cigarettes here, I wouldn’t be able to have a smoke until the next day, and the thought alone of having a nicotine withdrawal under my father’s surveillance was just unbearably

excruciating. The lady owner was sitting inside the corner store, and two boys who looked like high school students were wandering around the aisles. The lady sat there lethargically, looking at the TV and ignoring all words of greeting. “A pack of THIS PLUS, please.” “ID.” Here we go again. How annoying. As I was taking out my ID from my wallet, one of the young kids asked the lady. “Excuse me, do you have Large Huggies diapers?”

I thought that was weird. Why would a big boy like him come to a small corner sto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ith his buddy and ask for large diapers? Do they even carry diapers here? I took a glimpse around the store and saw the diapers, collecting dust in the corner. ‘Guess they have’em.’ I thought ‘not bad for a corner store.’ The lady owner handed me my change, and I headed towards the playground behind the store to have one more smoke before going home. Just then I heard someone scream “Thieves! Get those bastards!” I turned back, and saw the lady at the corner store pointing and screaming at the top of her lungs. My eyes caught hers. “They stole my cigarettes!” “Oh. I see.”

Serves you right, I thought, but I tried my best not to show. The lady kept on swearing under her breath and went back into the store, and I turned to go home. With a cigarette in my mouth and fumbling for a lighter in my pocket, I had the feeling that the thieves that stole the cigarettes were the kids that were asking about the diaper in the store. Then I understood what just happened back there. The little brats had made a strategic plan to rob the store! They’d asked the lady to take down something that’s the farthest from the till so that they can have the till empty, and waited until I left. When I came to realize this, I felt something crawl up from deep within my psyche. I wasn’t angry. Nor annoyed. It was something familiar and totally empathetic. I remembered the first time I got caught smoking a cigarette by my father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Oh, so now you even smoke?”

한심하고 못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자식들 오늘 내가 잡. 는. 다. 어째서 생각이 저 방향으로 튀어버린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어두컴컴한 아파트 뒷길을 걸어 내려가며 난 녀석들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17년을 오르내린 길이다. 눈을 감고도 다닐 자신이 있는 ‘내 길’ 이다. 담배를 양껏 훔쳤으니 저들끼리 소분을 해야겠지, 또 자축하며 한 대씩 피우겠지.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아파트 단지와 담장 사이에 널찍한 잔디밭. 슈퍼마켓 방향에서는 대략 세 군데. 난 제일 먼 곳에서부터 거꾸로 훑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만약 놓친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니까, 적어도 난 시도를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다. 짧은 순간 또 합리화를 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내려했다. 나란 높은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건가. 그때 멀찌감치 아파트 단지 끝 울타리에서 담뱃불이 보였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처럼 하나씩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불빛들. 난 천천히 그 빛을 향해 걸었다. 어스름 달빛에 의지해 근처에 다다르자 일곱에서 여덟 명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뭐라고 해야 하나. 소리를 지를까. 숫자가 너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흡션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여긴 너무 외진 곳인데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쓰러져 있는 곳을 설명하는데도 하 세월이겠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손이 떨려오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입이 떨어졌다.

“너희들 담배 훔쳤지.”

아이들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바퀴벌레가 구멍으로 숨어들듯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담을 타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망가는 아이들 틈에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한 명이 보였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몸이 떨리는 어리숙한 놈. 어디선가 봐오던 익숙한 모습. 난 녀석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말했다. “가자.” 잔디밭에서 슈퍼마켓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 녀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저기 아까 울타리 옆에 담배 남은 거

있는데 가지고 올까요?” “필요 없어.”

슈퍼마켓 앞에는 경찰차가 와있었다. 나는 주인아줌마에게 아까 담배 훔쳐간 애들이랑 한패라고 얘기하고 아이를 넘겼다. 그 후로 그 아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변한게 있다면 주인 내외는 더 이상 내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따금 열은 미소를 띄며 내 인사를 받아주었다. 다음 해 나는 가출을 했고, 1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12년 전 일이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를 잠식하던 그 시절. 지금도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고 전혀 낯설지 않다.

I was an adult and I could smoke all I want, but I couldn't say anything as if I had committed a crime. Perhaps it's since then I started panicking whenever taking my ID out. I was sick of it, sick of the fear and anxiety that dominate my life. I felt boundlessly pathetic. I didn't want to live such a hopeless life anymore. I was gonna get those brats. I still don't know how I came to think that way.

Walking down the dark alleyway behind the apartment, I drew out what paths the brats would've taken. I had taken the alleyway for the last 17 years. It was ‘my road,’ one which I was sure I can navigate with my eyes closed. Now that they had their cigarettes, they'd share them among themselves, and smoke them in celebration. And where would they do that? Somewhere quiet. Like the open grass field between the apartment buildings and the fence. There are three fields like this from the corner store. I walked slowly, from the farthest one. If I lose them, it wouldn't be my fault because I'd at least tried. I started to become angry at myself, at the fact that I was trying to justify myself in this short period of time. Is this all that I got? Just then, I saw a cigarette light far in the distance, by the fence at the end of the complex.

The light flickered on and off repeatedly, like Christmas lights. I slowly walked towards the light. Finding my way through under the dim moonlight, I got where the 7-8 kids were. What should I say? Should I just scream? There were too many of them so if things went wrong, I could end up beat up. It's too secluded here, and it would take me forever to have to explain to someone where to find me all beat up. My heart beat like crazy and my hands trembled, but these words abruptly came out of my mouth:

“You stole cigarettes, didn't ya?”

As soon as they heard this, the kids dashed towards the fence at an alarming speed like cockroaches. Among them, one kid stood

motionless, with his feet frozen on the ground. A naïve and dopey one, trembling in nervousness and fear, he was a familiar kind, the kind I've always seen somewhere before. I grabbed the back of his neck and said: “Move it.” It's a five-minute walk from the grass field to the corner store. The boy spoke to me in a trembling voice. “I left the remaining cigarettes by the fence back there. Should I go get it?” “Nah.”

There was a police car in front of the corner store. I handed the boy over to the lady owner and told her that he's one of the boys who stole the cigarettes.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 boys after that. If anything changed at all, it would be that the owners of the corner store no longer ID'd me and would even sometimes accept my greetings with a slight smile. The following year, I ran away from home and didn't return for a year. That was 12 years ago. Those were the days when fear and anxiety encroached on me. Memories back then and how I felt at the time are still so real and close.

글/그림: 조익정
카미시바이 목조물 제작: 김현
음악: 김인영
성우: 권혁규

Drawing/Script: Ikjung Cho
Kamishibai wooden structure
production: Hyun Kim
Music: In Young Kim
Voice Actor: Hyukgue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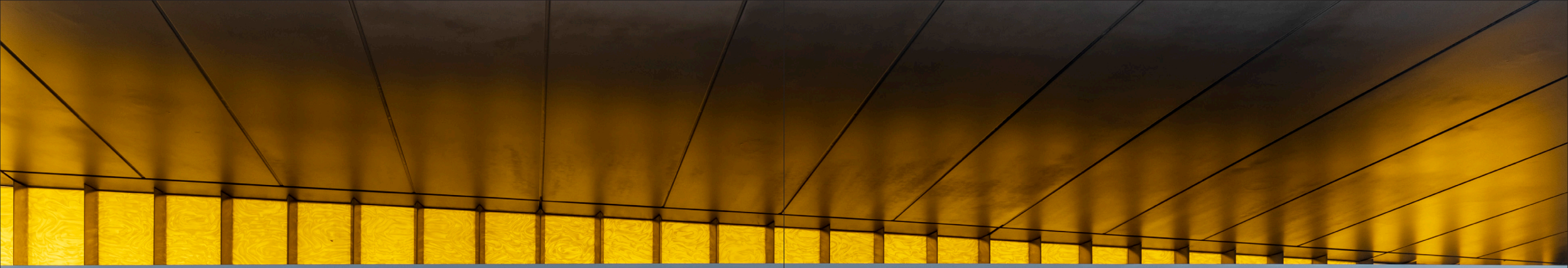
이용주, <아파트-경(景)>, 2019, 금속판 도장, 가변크기

Yongju Lee, *Apartment-scape*, 2019, Painted sheet metal, Dimensions Variable



이용주, <아파트-경(景)>, 2019, 금속판 도장, 가변크기

Yongju Lee, *Apartment-scape*, 2019, Painted sheet metal, Dimensions Variable



구지윤, <얼굴-풍경연작>, 2019, 캔버스에 유화, 각 76×60cm

Jiyeon Koo, *Face-Scape Series*, 2019, Oil on canvas, 76×60cm each

구지윤 (1982)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시카고 미술대학교 순수미술전공을 졸업한 후,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원의 스튜디오 아트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이바 다방(2016, 서울, 한국), 갤러리 175 (2011,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소다미술관(2019, 화성, 경기도), 하이트컬렉션(2018, 서울, 한국), 자하미술관 (2018, 서울, 한국), 위켄드(2018, 서울, 한국), 에이엠씨랩 (2018, 서울, 한국), 원앤제이플러스원(2017, 서울, 한국), 서울대미술관 MoA(2017, 서울, 한국)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Jiyeon Koo (1982) received her B.F.A of Fine Arts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M.F.A of Studio Art from New York University.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ARIO MUSEUM in SPACE (2018, Seoul, Korea), Project Space SARUBIA (2016, Seoul, Korea), Gallery 175 (2011, Seoul, Korea).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SODA Museum (2019, Hwaseong, Korea), HITE Collection (2018, Seoul, Korea), Zaha Museum (2018, Seoul, Korea), 2/W (2018, Seoul, Korea), AMC Lab (2018, Seoul, Korea), ONE AND J. +1 (2017, Seoul, Korea), MoA (2017, Seoul, Korea), etc.

김인배 (1978)는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소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2019, 상하이, 중국), 아라리오갤러리 서울(2014, 서울, 한국), 아라리오갤러리 천안(2011, 천안, 한국), 두산갤러리 뉴욕 (2010, 뉴욕, 뉴욕주, 미국), 아라리오갤러리 서울(2007, 서울, 한국), 갤러리 스케이프(2006,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 호텔(2018, 서울, 한국), 취미가(2018, 서울, 한국), 브레가 아티스트 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 돈의문 박물관마을(2018, 서울, 한국), 대구 미술관 (2018, 대구, 한국), 화이트 컬렉션(2017, 서울, 한국), 상하이현대미술관(2016, 상하이, 중국)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Inbai Kim (1978) received his B.F.A and M.F.A of Sculpture from Hongik University. He has held solo exhibition at ARARIO GALLERY SHANGHAI (2019, Shanghai, China), ARARIO GALLERY SEOUL (2014, Seoul, Korea), ARARIO GALLERY CHEONAN (2011, Cheonan, Korea), DOOSAN Gallery New York (2010, New York, N.Y, U.S.A), ARARIO GALLERY SEOUL (2007, Seoul, Korea), Gallery Skape (2006, Seoul, Korea). 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ARARIO GALLERY SEOUL RYSE HOTEL (2018, Seoul, Korea), TasteView (2018, Seoul, Korea), Brega Artist Space (2018, Seoul, Korea), Donuimun Museum Village (2018, Seoul, Korea), DAEGU ART MUSEUM (2018, Daegu, Korea), HITE Collection (2017, Seoul, Korea), MOCA Shanghai (2016, Shanghai, China), etc.

이용주 (1979)는 연세대학교 건축 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건축 전문대학원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소다미술관(2019, 화성, 경기도), 오설록 티 뮤지엄(2018, 제주, 한국),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2017, 서울, 한국), 문화비축기지(2017,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4, 서울, 한국),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2013, 서울, 한국)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한강예술공원(2018, 서울, 한국), 면목 119 안전센터(2017, 서울, 한국), 와이오밍 테톤카운티 주립도서관(2013, 카운티, 와이오밍주, 미국), 레오나르도 과학박물관(2011, 솔트레이크, 유타주, 미국)등 다수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YongJu Lee (1979) received his Bachelor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from Yonsei University and Master of Architecture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Preservation.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SODA Museum (2019, Hwaseong, Korea), Osulloc Tea Museum (2018, Jeju, Korea), Sulwhasoo Flagship Store (2017, Seoul, Korea), Culture Tank T6 (2017, Seoul, Korea), MMCA Seoul (2014, Seoul, Korea), MoA (2013, Seoul, Korea). He also participated in architectural projects at Hangang Art Park (2018, Seoul, Korea), Myeonmok Fire Station (2017, Seoul, Korea), Teton County Library (2013, Jackson, WY, U.S.A), Leonardo Museum of Art (2011, Salt Lake City, UT, U.S.A), etc.

조익정 (1986)은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와 전공과 미술사학 부전공을 졸업하고 서울시예술대학교 순수예술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탈영역 우정국(2016, 서울, 한국), 코너 아트 스페이스 (2014, 서울, 한국), Even the Neck(2013, 런던, 영국)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아트 스페이스 풀(2019, 서울, 한국), 왕산로 9길 24(2018, 서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2018, 서울, 한국),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2017, 서울, 한국),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2016, 서울, 한국), 한국예술종합학교 복도갤러리(2016, 서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2016,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Hwang Jung (1990)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글래스고 예술대학교에서 Master of Letters in Fine Art Practice 학위를 받았다. 송은아트큐브(2018, 서울, 한국), 사이아트큐브(2016, 서울, 한국), House for an Art Lover (2015, 글래스고, 영국)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구)현대차 서비스센터(2018, 서울, 한국), 강남아파트(2018, 서울, 한국), 인천아트플랫폼(2017, 인천, 한국), 문화역서울 284(2017, 서울, 한국), 인천아트플랫폼(2017, 인천, 한국), 스페이스 빔(2016, 인천, 한국), 청계상가(2016,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Ikjung Cho (1986) received her B.F.A of Painting & Print Making and Minor in Art History from Ehwa Womans University and M.F.A from Chelsea Collage of Art and Design. She has held solo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2016, Seoul, Korea), Corner art space (2014, Seoul, Korea), Even the Neck (2013, London, UK).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Art Space Pool (2019, Seoul, Korea), WANGSAN-RO 9-GIL 24 (2018, Seoul, Korea), Seoul Museum of Art (2018, Seoul, Korea), Buk-Seoul Museum of Art (2017, Seoul, Korea), PLATFORM-L (2016, Seoul, Korea),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2016, Seoul, Korea), Seoul Museum of Art (2016, Seoul, Korea), etc.

Moonjung Hwang (1990) received her B.F.A of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ster of Letters in Fine Art Practice from Glasgow School of Art. She has held solo exhibition at SONGEUN ART CUBE (2018, Seoul, Korea), Cyart Cube Gallery (2016, Seoul, Korea), House for an Art Lover (2015, Glasgow, UK).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HYUNDAI Motor Studio (2018, Seoul, Korea), GangNam Apartment (2018, Seoul, Korea), Incheon Art Platform (2017, Incheon, Korea), Culture Station Seoul 284 (2017, Seoul, Korea), Incheon Art Platform (2017, Incheon, Korea), Space Beam (2016, Incheon, Korea), Cheonggye building (2016, Seoul, Korea), Westbury Arts Centre (2015, Milton Keynes, UK), Fondazione Mandralisca (2014, Cefalu, Italy), Paisley Museum (2014, Glasgow, UK), etc.

두산인문극장 2019: 아파트 기획전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이 책은 2019년 5월 1일-6월 22일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열린 '두산인문극장 2019: 아파트'의
기획전시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of the 2019 DOOSAN
Humanities Theater Series: *Apartment Nation*,
Our Paradise, Probably a Great Place, from
May 1st to June 22nd, 2019.

발행·기획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맹지영
정진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권한아

글
맹지영

번역
황선혜

영상촬영·편집
이태석

사진
홍철기

디자인
이원섭

인쇄
청산인쇄

Published by
DOOSAN Gallery

Curator
Jee Young Maeng
Jinwoo Chung

Assistant Curator
Hanah Kwon

Text
Jee Young Maeng

Translation
Sunhye Hwang

Filming and Editing
Taeseok Lee

Photo
Cheolki Hong

Design
Wonseop Lee

Print
Chungsan Printing

©2019 DOOSAN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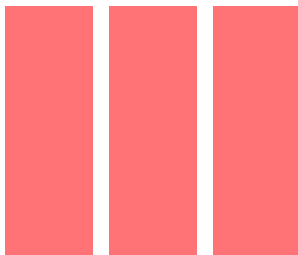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두산갤러리와
저자, 작가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 recoding or any other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having obtained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e writer and the artist.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파트



APARTMENT NATION